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오늘 김진태 지사 주재 강원 어업인 간담회	1
江原日報	27면	“강원도민 재활치료 역할 충실히 이행할 것”	2
강원도민일보	21면	화천 김종선씨 '경로당 실버트롯' 최우수상	3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업무 지역거점 편리" vs "의원 개인비서 전략"	4
강원도민일보	04면	"급식노동자 대체인력 확보·자동화 기기 설치 확대를"	4
江原日報	22면	"아이들 교육 걱정 없는 화천 만들자"	5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주민 '세월교 안전진단' 자체 재검증	5
강원도민일보	20면	'위기를 기회로' 정선 농업인 농업발전 힘 모은다	6
江原日報	27면	“강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한차원 도약 위해 온 힘”	6
강원도민일보	13면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교통망 완성"	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7
江原日報	04면	신경호-조희연 '농촌 유학' 손 잡는다	8
江原日報	01면	20대 청년 年 6천명씩 강원도 떠났다	8
江原日報	02면	道 ‘갑질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9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18 평창 계승' 성공 염원	10
강원도민일보	02면	'올림픽 스타 총출동' 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11
강원도민일보	03면	"올림픽도시 브랜드 외연확장·지역발전 동력 다시 마련을"	11
강원도민일보	24면	상지대관령고 썰매 특급유망주 올림픽 메달후보 급부상	12
강원도민일보	24면	2024대회 메달 디자인 공개	12
江原日報	04면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도내 농가는 시큰둥	13
강원도민일보	01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현장조사… 조기착공 촉구	13
강원도민일보	04면	"태백 장성광업소 대책없는 폐광시 지역붕괴 가속화"	14
江原日報	16면	홍천군 '수도권 바이오시티'로 도약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목재가공 및 산림경영 촉진 계기로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향토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해야	16
江原日報	25면	[사설] ‘현안 해결·국비 확보’ 힘 보태는 국회의원 보좌진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외자 유치 꿀찌 벗어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18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2

오늘 김진태 지사 주재 강원 어업인 간담회

오염수 공포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안전관리 대책 설명·현장 의견 수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수협장, 업종별 어업인 대표들과 수산물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산물 안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도는 7일 환동해본부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주재하는 어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격 하락이 우려되자 긴급히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권혁열 도의장과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 도의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설명을 듣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안해역의 주기적인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사고 이전과 방사능 농도가 유사한 수준인 점, 또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더라도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어업인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또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강원 청정 수산물의 안전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수도권 롯데백화점에서 수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일본이 곧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촉진을 통해 수산업계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江原日報

2023 07 07 ()

27

“강원도민 재활치료 역할 충실히 이행할 것”

이승준 도재활병원장 취임

병원 증축 역량 발휘 강조
도·춘천시 등 협력 다짐도

이승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장 취임식이 6일 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등이 참석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장애 친화적인 지역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초대 원장을 맡게 된 이승준 신임 원장은 “재활병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재활병원 증축과 관해서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도민의 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제10대 이승준 병원장 취임식이 6일 춘천시 우두동 도재활병원 강당에서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활치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해 한 해 우리 재활병원의 환자 수는 연간 7만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올해 10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새로 지

어 도내 장애아동이 재활을 위해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육동한 시장은 “우두동 일원을 재활의 클러스터로 만들어 장애인의 생애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21

화천 김종선씨 '경로당 실버트롯' 최우수상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

본지·노인회 도연합회 주최
본선 진출 22명 원주서 무대
우수상 2명·장려상 3명 선정

김종선(화천·74)씨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어르신 스타가수가 됐다.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실버 트롯 경연대회가 6일 원주치악예술관에서 경연참여 어르신 22명과 도내 18개 시·군 각지에서 온 응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열렸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하고 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도노인회 원주시지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김종선씨는 '별빛같은나의사랑아'를 열창해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우수상은 김소영(춘천)·김장근(횡성)씨, 장려상은 심명섭(속초)·한철구(고성)·박영자(원주)씨가 뽑혔다. 권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2명은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각 지역 응원단과 청중들도 응원 현수막



6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실버 트롯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과 화려한 응원도구를 동원, 춤추거나 환호하며 축제를 즐겼다.

'돌리도'를 부른 가수 서지오, 예선부터 심사한 이영아씨의 축하공연도 분위기를 달궜다. 김경수·이규송·오금자·성남실씨 등 지난해 수상자들도 가수로서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날 주최측 이건설 도노인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신경호도교육감, 김기홍도의회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태훈 원주부시장, 유종우도노인회수석부회장(원주시지회장)을 비롯한 시·군노인회장단과 도노인회 임원, 강희성 대한노인회 경로당중앙지원본부장 등 노인지도자, 대회를 후원한 최병준 아이포커스

대표 부부 등이 함께했다. 김진태도지사는 영상 축전, 송기현 국회의원은 축전으로 응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 나이 먹은 뒤 다시 예체능을 하게 되는데 뜨거운 체온으로 1년 365일 행복하게 노래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분들에 대한 보답이 필요한 시기다. 어르신들의 더욱 즐거운 생활을 위해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훈 부시장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으며 유종우 수석부회장은 "자신만만하게 노익장을 과시한 어

르신들께 감사드린다. 원주에서 희망과 꿈, 건강과 행복을 채워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건설 회장은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이 존경받고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인만큼 어르신 모두 어디서나 웃음과 활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석 회장은 "말처럼 노래에도 훈이 있다. 씩씩하고 활기찬 노래를 부르면 건강에도 도움 되실 것"이라고 했다.

내빈들의 공연도 특별했다.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곡 '추풍령'을 관객들에게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고, 신경호 교육감은 축하 후 곡 '인생'을 즉석에서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려 환호가 이어졌다.

김진형

2023 07 07 ()

04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업무 지역거점 편리” vs “의원 개인비서 전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의견 분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8개 시·군에 지역상담소와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이를 두고 ‘업무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상담관이 개인 비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심영근)는 오는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최승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는 18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민원상담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18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구입비 8억1000만원(2023년분), 상담사 연간 인건비 4

최승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심의

주민 편의성 제고 등 찬성 의견

상담관 업무 악용 우려 반대도

억8600만원, 1년 임차료 3억24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연간 8억6400만원 규모다.

찬성 측은 지역상담소가 도의회 업무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회기 동안 춘천에 있을 때, 민원인을 직접 만나지 못할 때는 주민이 주는 서류를 카페에 맡긴 적도 있다”며 “상담소가 생기면 주민들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기철(정선) 의원은 사무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임차료와 인건비로 한달 의정비만큼을 지출했었다”며 “지역사무소와 직원이 있으면 의정활동의 폭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했다.

반대 측은 상담소가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진급 A의원은 “지역에서 군의원이 있고, 지역 민원을 제일 잘 안다. 도차원의 해결이 필요할 때 도의원이나 서면 되는 것”이라며 “상담관도 의원 한 명의 ‘비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의 B의원도 “민원 접수는 당협사무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지역상담소는 경기, 충남 등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상담소를 1년여간 운영하다 지난해 조례를 폐기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4

“급식노동자 대체인력 확보·자동화 기기 설치 확대를”

학비노조 강원지부 토론회서 요구

도의회·도교육청 처우개선 약속

속보=강원도내 폐암확진을 받은 학교 급식종사자 3명 중 한 명이 산업재해를 승인(본지 6월28일자 5면 등)받으며 학교 급식실 근무와 폐암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확보와 자동화 기기 설치를 통한 업무강도 경감 등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급식실 노동자 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승진 도의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 박재경 학비노조 강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권현미 신철원초 조리사는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 가혹한 환경이었다”면서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어깨 회전근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환자는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폐암환자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거점별 대체인력 확보 △자동화 기기 설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청도 여러분이 걱정없이 일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에 존중과 소통으로 마주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진 도의원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례 역시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엽

2023 07 07 ()

22

江原日報

“아이들 교육 걱정 없는 화천 만들자”

‘화천교육포럼’ 출범

다양한 의제 발굴·소통 ‘실천중신 협의체’로 활동

【화천】화천교육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천교육포럼’이 출범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6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김종녀 교육장을 비롯해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포럼 출범식을 갖고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화천교육포럼은 박대현 도의원과 류희상·김동완 군의원, 이봉은 화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지역 학교 및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학부모, 지역 및 출향 인사 등 지역 교육에 애정



◇‘화천교육포럼’ 출범식이 6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김종녀 교육장을 비롯해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을 지닌 67명으로 구성됐다.

이 모임은 화천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소통하며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협의체’로 활동하게 된다.

또 포럼에서는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방향과 실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녀 교육장은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이 공론장이 우리 화천의 아이들이 각자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귀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군수는 “화천군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화천교육포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9

춘천주민 ‘세월교 안전진단’ 자체 재검증

지역사회 존치 필요성 여론 확산
인도보행 등 보강 가능성 재조명
시변영회 의견수렴 전의 예정
시 “철거 불가피” 입장변화 없어

속보=세월교 존치 청원이 춘천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철거가 불가피(본지 6월 5일자 4면 등)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존치 여론이 확산되자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존치 여론에 불씨를 살리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주민들의 세월교 존치 여론이 확산되자 최근 지역의 교량안전전문가는 재능기부차원의 교량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세월교는 지난 2021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고 인도 진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세월교가 인도진입까지 불가할 만큼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잇따랐고, 안전 제반사항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자체적으로 교량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양숙희 도의원은 “철거를 위한 진단은 아니었는지, 보강을 통해 다리

를 살릴 수 있는지 다시 재조명하는 차원”이라며 “D등급이라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인도보행만 이뤄질 경우 수십년 더 보존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존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신복읍 주민들은 지난달 세월교 존치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여기에 안전진단 재진단 등이 이뤄지면서 신복읍 변영회를 비롯한 춘천시변영회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호 춘천시변영회장은 “신복읍

주민들도 존치를 원하고 있고,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추억이 되는 곳이다 보니 존치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춘천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시민 안전 등을 감안해 내년 당초예산에 철거비용 13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춘천시관계자는 “원주환경경과와 관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승은 ssne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20

‘위기를 기회로’ 정선 농업인 농업발전 힘 모은다

정선군농업인단체 첫 통합대회
5개 단체 모여 화합·결속 다져
최승준 군수 “농업 정책발굴”

정선군농업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발전 기틀을 마련 하겠다며 결속을 다졌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 (회장 임종근)가 주최한 제1회 정선군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가 6일 정 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임종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정선군연 합회장,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회 정



제1회 정선군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가 6일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선군지회장, 이귀인 민족통일강원특 별자치도협의회장, 농업인단체 회원 및 가족, 유관기관 등 700여명이 참석 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 다. 그동안 단체별로 개최하던 행사를 통합해 올해부터는 한국후계농업경영

인정선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정 선군연합회, 농촌지도자정선군연합 회, 생활개선정선군연합회, 4-H정선 군연합회 등 5개 농업인 단체가 한자리 에 모여 농업인단체의 화합, 회원간 친 목도모 및 정보교류, 지역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 수여, 농업봉사상 수상,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종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정선군 연합회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 어려운 영농환경에서도 정선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신 각 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최승준 군수는 “농업인들은 급변하 는 농업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도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 도록 정책 발굴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江原日報

2023 07 07 ()

27

“강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한차원 도약 위해 온 힘”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 복지대회’가 6일 고성 파인리조트에서 개막식을 갖고 7일까지 진행 된다. (사)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올해 대회는 재가노인복지시 설 종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직원전문 화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재가노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 2부로 나뉘어 열린 개막식 1부에서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 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김은숙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 김춘 자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 사, 박경자 아름다운동행 재가센터 요양보호사에게 도지사상이 전달됐 다. 도의회의장상은 정운영 경성재가 복지센터·홍호경 동해시노인종합복 지관복지센터 등 4명의 요양보호사 가 수상했다.

2부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 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 이 실시됐다. 권영만 청송군재가노인

고성서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대회 열려
김은숙·김춘자·박경자씨 도지사상 ... 발전 모색 특강도



◇(사)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박인규)가 주최한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 복지대회’가 6일 고성 파인리조트에서 개막했다.

통합지원센터 시설장이 강사로 나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현재와 전망’을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의 발 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박경호 한 립성심대 교수가 재가노인복지 종사

자에게 힐링과 재충전을 위한 화합의 시간을 선물했다.

박인규 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22년의 역사를 지닌 강원재가노 인복지협회의 회원기관들과 종사자 들은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연계하고 있다”며 “재 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자·공급자 모두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를 위한 협회의 고민과 노력에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 다. 7일에는 승근배 양지노인마을 원 장이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를 위해 ‘건강한 조직의 조건’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조남범 한국재가노 인복지협회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 의회장, 진영호 도사회복지시협회장, 박광용 고성부군수, 송영순 도 노인복 지과장, 유종숙 속초시 경로시설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13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은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및 홍천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교통망 완성”

찾아가는 강원특자치도 도민설명회

홍천군이 30년 후 홍천을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은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및 홍천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박영록 군의원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추진 영상시청, 김지사의 특자치도 관련 발표, 비전 선포식, 신 군수의 홍천군 미래비전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특자치도 시대에 발맞춰 30년 후 홍천의 청사진을 담

은 비전으로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을 제시했다.

신 군수는 “홍천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춘천, 원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교통망 완성으로 생활인구가 넘쳐나는 홍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순환철도 완성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이어 △미래 건강 K-Bio 첨단도시 △산림치유 정 휴양도시 △넓은 기회의 땅, 살기 좋은 청년도시 △시니어친화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총 5개의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설명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발표했다.

유승현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14



최종수(평창)도 의원은 8일 오후 6시 알펜시아 뮤

직텐트에서 열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특별콘서트에 참석한다.

2023 07 07 ()
04

江原日報

신경호-조희연 '농촌 유학' 손 잡는다

(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

올 9월부터 서울지역 학생들이 영월과 춘천 흥천 황성 양구 등 강원지역 농촌으로 '유학'을 온다.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최명서 영월군수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교육청에서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농촌 유학은 서울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강원 농촌지역 학교로 1학기 또는 1년 간 유학, 생태교육환경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장기적으로 도시 유학생 가족을 귀농·귀촌 형태로 정착시키



◇신경호

오늘 서울교육청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최명서 영월군수도 참석... 정주 여건 지원
9월부터 서울 학생들 도내 5개 시·군 유학

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농촌 유학 학생 모집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전북지역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데 이어 올해는 강원도까지 확대했다. 최근 농촌 유학 사업 예산의 근거가 됐던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됐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 사업비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7월10일부터 농촌 유



◇조희연

학 사업에 참여할 학생 모집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농촌 유학 협력학교를 모집해 운영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정주비 등 유학경비를 1인당 6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과의 예산 매칭을 통해 30만원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발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자체 확보한 예산으로 인원수를 기존 100명에서 50명

으로 줄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강원특별법에 '강원유학(농어촌 유학) 특례'가 새롭게 반영된 만큼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한층 안정적이고 다양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농어촌 유학 사업 참여 학교는 춘천 흥천 황성 영월 양구지역 학교들이다. 영월군은 농촌 유학생 거주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세민 대변인은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07 ()
01

20대 청년 年 6천명씩 강원도 떠났다

27년간 순유출 16만7,032명

女 8만8,530명 1만명 더 많아

양질 일자리·인프라 부족 원인

'지역 소멸' 위험까지도 가속화

1995년 이후 16만 명이 넘는 20대 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유출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7년간 도내 20대 청년층의 전입자 수는 146만254명, 총 전출자 수는 162만7,286명으로

16만7,03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동해와 속초의 전체인구를 합한 17만1,665명(올 5월 기준)과 맞먹는 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전출자는 7만8,502명, 여성은 8만8,530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7년간 강릉에서 20대 여성 1만5,068명 순유출돼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삼척은 1만2,590명, 정선 7,382명이 각각 유출돼 뒤를 이었다. 정선은 20대 여성 전출이 전체 전출자의 13.4%를 차지하며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2005년 정선군의 주민등록상 20대 여성인구는 2,311명이었지만 2021년엔 827명

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대 여성이 강원도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 지역 내 교육, 주거, 문화 등 인프라가 미흡하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도내 20대 여성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소멸' 위험도 커졌다. 지역소멸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역소멸위험지수의 산출 근거가 20~39세 젊은 여성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도내 소멸위험지역은 춘천,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 모두 해당한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따로 소멸 '고위험' 지역을 분류했는데, 횡성, 정선, 평창, 영월 등 도

내 4곳이 신규 포함됐다. 다만 지역소멸위험지수가 지역소멸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측면에서 비판도 따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속성 등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수' 지표를 개발했다. 행안부가 밝힌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로 태백, 삼척이, 군 단위에서는 인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이원화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 19세부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도내 여성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지역기업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동휘기자

江原日報

2023 07 07 ()
02

道 ‘갑질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오늘 공포... 하반기 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태 지사가 직접 제안한 이번 조례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 시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올 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6월 제320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거쳐 7일 공포된다. 그동안 강원자치도는 근로기준법,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에 의거해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

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 근절 및 예방 업무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갑질 근절 대책수립 및 시행,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갑질 예방 교육,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신고, 피해 회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자치도는 조례가 시행되는대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현준태 강원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참여 확산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1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18 평창 계승' 성공 염원

G-200 계기 성공개최 다짐 행사
탄소중립·친환경대회 진행 강조
유니폼 공개·봄업 퍼포먼스도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6

일로 197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가게 될 2024대회 봄업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대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이자,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대회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진중오·이상화)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4강원대회 G-200 계기 성공개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진중오·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심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G-200 계기 성공개최 기원행사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국평창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유승민 평창기념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해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회 성공개최를 염원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대회가 ‘탄소중립·친환경 대회’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올림픽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진행될 총 9개의 경기장 거의 대부분은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경기장 및 건물”이라며 “탄소배출량을 90%로 감축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부 장관도 “2024강원 대회는 전 세계의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가 성공을 뛰어넘는, 세계인들이 가장 환호하는 대회가 되도록 힘차게 출발하자”며 하나된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피겨여왕’ 김연아와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최민정 등 2024강원대회 홍보대사, 청소년

서포터즈가 참석해 대회 글로벌 봄업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배우 박선영은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이 착용할 대회 유니폼을 선보였다. 진중오·이상화 공동조직위원장은 “2024대회는 강원도에 다시 찾아온 세계인의 축제”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2024강원 대회는 내년 1월 19일~2월 1일 14일간 강릉시와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

에서 열린다. 70여개국 15~18세 선수 1900명을 포함한 전체 60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2024대회 봄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강원도민일보는 이날,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에서 평창군, 평창유산재단과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개최 5주년 지역주민의 역할 재조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세훈

▶ 관련기사 2·3·24면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2

‘올림픽 스타 총출동’ 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GANGWON
2024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대회 성공 개최 기원행사’에서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붐업 조성에 앞장섰다.

먼저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는 이번 2024 강원대회 시상대에 오를 청소년들에게 수여될 메달(뒷면) 디자인을 직접 설명했다. 메달(뒷면) 디자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강원예술고등학교, 양구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디

홍보대사 김연아 메달 직접 소개
도내 중·고교생 디자인 제작 참여

자인 제작과정에 참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꽃을 반영시키면서 성장을 상징하는 빛줄기가 표현된 메달(앞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받았다.

김연아는 선포식 행사에서 “메달을 획득하긴 했지만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른 느낌의 설렘”이라며 “강원

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최 도시의 정체성을 담았고,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들의 멋진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최민정과 발레리나 김주원,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무대에 올라 강원 환경친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알리는 ‘PET병 수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진중호·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과 스포테이너 박재민, 탤런트 박선영, 쇼트트랙 국원기 선수 등이 이번 2024 강원대회 자원봉사자 및 운영인력이 착용할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이세훈

▶ 관련 사진 24면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3

“올림픽도시 브랜드 외연확장·지역발전 동력 다시 마련을”

평창올림픽 개최 5주년 심포지엄
개최도시 지역주민 역할론 부각
특자도 올림픽 유산 사업화 탄력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과정을 회고하고,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5주년 기념 및 올림픽 도시 지역주민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이 평창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 5주년-지역주민의 역할 재조명 심포지엄’이 6일 오후 평창군 대관령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평창군이 주최하고, 평창유산재단·강원도민일보·2018 평창 올림픽 유치 기념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8 평창 올림픽의 제2막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붐업 조성이 본격화된 것과 맞물린 시점에 진행돼 올림픽 도시와 올림픽 도시 주민들의 역할론이 집중 부각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은 올림픽 도시가 창출한 ‘올림픽 정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 5주년-지역주민의 역할 재조명 심포지엄’이 6일 평창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열린 가운데 심재국 평창군수와 심현정 평창군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을 이어가며, 국제 스포츠 도시로도 약한 올림픽 도시 브랜드의 외연 확대와 함께 올림픽 유산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평창군의 정체성 정립과 주민 주도의 올림픽 유산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기조연설에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고, 세계 속에 평창을 알린 절호의 기회였다”며 “교통망 개선 등 각 부문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어

졌다. 특히,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평창 올림픽 유치의 긴 여정은 우리 평창군에 남겨진 가장 큰 자산이자 성과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중은 상지대 교수는 “평창군민들의 국제행사 참여 경험은 국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을 사업들과 연계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광성 평창군의원은 “대한민국 레저 스포츠 도시, 평창 브랜드화를 목적

으로 올림픽 유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김봉래 대관령면 번영회장은 “평창 올림픽 문화 유산 발굴은 계속돼야 한다. 위케이션 센터와 한달살이 숙소 등 유형 유산과 대관령 음악제와 연계한 아트비엔날레 등 무형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5주년을 맞는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부문에서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심현정 평창군의장은 축사에서 “평창 올림픽은 평창군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군민과 함께 2018 평창 올림픽의 불꽃을 더욱 밝혀 나가자”고 했다. 염돈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기념 위원장은 “올림픽을 성공 개최했지만 실질적으로 올림픽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창군민을 위한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포지엄에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취재단장을 맡았던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이 ‘평창 올림픽 유치와 지역주민의 역할’, 김재봉 평창군 올림픽 체육과장이 ‘평창 올림픽 유산 사업과 추진 계획’,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평창 올림픽 유산 활용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종합 토론은 전남수강원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한명희 강원대 교수, 정중은 상지대 교수, 김광성 평창군의원, 김봉래 대관령면 번영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 영상 kado.net·토론 상보 10일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24

상지대관령고 썰매 특급유망주 올림픽 메달후보 급부상

GANGWON
2024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내 동계스포츠 꿈나무들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강원 출신 비록한 국내 유망주들이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오는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빛냈다.

먼저 상지대관령고 선수들이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한국 봅슬레이 막내 소재환은 지난 3월 평창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IBSF) OMEGA 유스 시리즈 대회 남자 모노봅 (1인승 봅슬레이) 부문 3, 4차서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세 미만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대표팀에 소속된 소재환은 메달 가능성이 높은 특급 유망주다. 같은 대회 여자 모노봅 4차에서 은메달을 목에

봅슬레이 소재환 국제대회 2연패 스켈레톤 신연수 미국서 첫 우승 피겨·스노보드도 맹훈련 돌입

권 최시연도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상지대관령고의 스켈레톤 선수들도 메달 전망이 밝다.

스켈레톤 청소년 국가대표 신연수는 같은 대회 남자 스켈레톤 4차에서 6위를 기록하며 입상 가능성을 높였고, 결국 지난 3월 미국 레이크 플레시드에서 열린 5, 6차 대회서 연달아 대회 정상에 오르며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상지대관령고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스켈레톤을 시작한 신연수는 약 1년 만인 지난 2월 국가대표 후보 (유망주)에 선발됐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

2018평창기념재단이 지난 4-6월 까지 진행한 유망주 육성 전지훈련인 '플레이워터 특별전지훈련'에 선발된 6명의 피겨, 스노보드 선수들도 주목 받는다.

피겨에서는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 신지아 (영동중) 주니어 그랑프리 은메달리스트 권민솔 (목동중), 피겨기대주 윤아선 (수리고)이, 스노보드에서는 X Games와 Dew Tour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가은 (세화여중)과 하프파이프 기대주 김건희 (시흥매화중) 등이 선발돼 맹훈련을 받았다.

특히 최가은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엑스게임과 듀투어 대회 스노보드 슈퍼파이프에서 두 대회 모두 이중목의 '전설'로 불리는 클로이 김 (미국)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경신해 오는 올림픽에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선수다.

심예섭 yes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24

2024대회 메달 디자인 공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200 계기 성공개최 기원 행사에서 메달 디자인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江原日報

2023 07 07 ()

04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도내 농가는 시큰둥

농한기에도 인건비 지급해야
“계절근로제도 유연화 더 시급”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가와 다년간 계약을 맺는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고용안을 개선했지만, 단기 계절근로자가 다수인 강원지역 농가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자가 이탈할 시 바로 외국 인력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발

표했다. 또 근로자들의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지자체에는 사업장별 고용 허가 한도를 높이는 등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 혹은 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올해 1분기 기준 농축산업에 고용된 강원지역 비전문외국인력은 총 1,201명이다.

하지만 정작 도내 농가들은 개선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별이 뚜렷한 농업 특성상 농한기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기준 강원지역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170명으로 비전문외국

인력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도내 농가들은 계절 근로자의 고용 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원주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남금현(57·흥업면 대안리)씨는 복숭아 수확기에만 일당 12만원을 주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남씨는 “소규모 농가들은 계절근로자 고용마저 부담이 된다”며 “소규모 농가들끼리 계절근로인력을 공동 사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장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장은 “강원지역에 절실한 것은 계절근로제도의 유연화”라며 “노동자 이탈 방지나 숙소 지원책 등을 계절근로제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오미기자 omme@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01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현장조사... 조기착공 촉구

KDI 답사단 이틀간 조사 진행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 여부 결정
지사·시군 단체장 당위성 피력

강원특별자치도와 폐광지역의 대표 SOC 현안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본선의막이 올랐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2회에 걸친 점검회의 이후에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KDI 현장답사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마지막날인 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고속도로 노선 구간 지자체장인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은 이날 삼척시청을 찾은 KDI 현장조사단과 면담을 갖고, 예타

통과 및 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동서 6축 평택~삼척 구간 중 유일한 미개설 구간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게 평가되면서 예타 대상 선정이 불투명했으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 적극 고려돼 지난 5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지사는 “평가에 있어 우려되는 점은 총사업비 5조 2031억원으로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백두대간

에 길을 내려면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험준한 산악지역에는 가산점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경부고속도로도 경제성이 낮다고 반대가 많았는데 막상 개통하고 나니 달라졌다”며 “고속도로가 생기면 경제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은 영월~삼척고속도로가 무산되면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원남부권의 미래를 밝혀줄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

강원도민일보

“태백 장성광업소 대책없는 폐광시 지역붕괴 가속화”

주민, 내년 6월말 폐광 중단 요구
연간 2차 피해액 552억7100만원
대체산업 촉구 생존권 투쟁 결의

태백 최대 일터이자 마지막 남은 탄광인 장성광업소 폐광을 1년 앞두고 대체산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반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최대 직격탄을 맞는 장성지역 주민들은 오는 2024년 6월말로 예정된 폐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장성광업소 폐광시 상가 폐업 등 2차적 지역경제 피해액은 연간 552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876명이다. 장성지역 현안 비상추진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석탄 광산의 폐광으로 마을

이 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왔기에 대책없는 폐광은 지역경제 붕괴와 지역 공동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2024년 조기 폐광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광으로 남는 것은 진폐로 병을 얻은 광부, 일자리를 찾아떠나는 광부, 중금속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폐광산, 문을 닫는 소상공인, 이삿짐 꾸리는 주민, 문 닫힌 상가, 버려진 집 등으로 석탄산업 100년 역사의 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성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탄공사와 정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없는 조기 폐광 즉각 중단, 폐광에 앞서 동일 수준 규모의 대체산업 추진, 폐광산 환경관리 대책 마련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우열

江原日報

홍천군 ‘수도권 바이오시티’로 도약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내륙순환철도 완성 약속
향후 30년 미래비전 선포

【홍천】홍천군은 강원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수도권 바이오 시티, 홍천’을 미래비전으로 향후 30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및 홍천군 미래비전 선포식’이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을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 군수는 ‘수도권 바이오 시티, 홍천’을 위한 5가지 핵심전략 슬로건과 미래비전을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및 홍천군 미래비전 선포식’이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했다. 우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춘천~원주까지 통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순환철도 완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을 실현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비롯한 생활인구가 홍천으로 찾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홍천국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적 역

할을 홍천이 담당하는 ‘미래건강 K-바이오 첨단도시’, 규제특례로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산림치유 청정휴양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스마트 제조 플랫폼이 구축되는 ‘시니어 친화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이 마련돼 도시청년이 찾아와 정착하고 살기 좋은 ‘넓은 기회의 땅, 살기 좋은 청

년도시’ 등도 미래비전으로 내세웠다.

신영재 군수는 “홍천의 역량을 결집해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강원특별법에 담긴 중점 4대 규제 혁파와 주요 특례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홍천은 그동안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핵심 4대 규제에 묶여 오랜 기간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면서 “강원자치도 출범을 맞아 홍천이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 19

목재가공 및 산림경영 촉진 계기로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 기대감 성과로 보여야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식이 어제(7월5일) 있었습니다. 국산 원목으로 구조용 제재목과 벽판재, 마루재 등 목조 건축재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금을 출자한 춘천목재협동조합과 산림청, 강원도, 춘천시 등 정부예산과 지원금 등 70억원을 투입해 3년간 작업을 거쳐 목재가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강원지역에서 임산자원 활용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천시는 이곳에서 생산한 목재로 삼천동에 야외 공연시설 및 휴게공간 전망대 등을 갖춘 목조문화체험융복합문화공간을 건설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시가지에는 목재 특화거리와 목공체험공간 등을 구축해 시민들이 친근하게 목재문화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춘천목재산업단지 운영이 상업적 용도는 물론 교육체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림 이용에 대한 계기를 확장하는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강원지역은 '산림왕국'으로 불리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제한적입니다. 도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는 휴양시설과 산책로 등

은곳곳에 조성돼 있어 일반인과 친숙하지만 가공산업은 아직 본격화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강원 고유의 산림문화와 가공기술을 보존하거나, 산림경영 및 목재산업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목재 건축산업이 주목받으며 국산 목재 활용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국산목재는 자연 친화적 재료로 주거를 비롯해 다양한 건축과정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와 환경에 맞는 국산목조 건축물에 대한 모색이 꾸준히 있었고, 화재 등에 취약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연구가 지속돼오면서 이전보다 활용도는 커졌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에 앞서 인제와 영월, 양구 등지에서도 한옥을 기반으로 목재산업 플랫폼을 지향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 산림소유주 및 산림조합, 소규모의 목재가공업체와 함께 관련 대학, 전문 연구자 등의 학술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산림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해 상생하는 장이 활발하길 기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7 ()
/ 19

향토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해야

-정부지방은행인가추진, 금융주권강화기회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점 체계가 굳어져, 일부 은행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개선안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으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IT기업의 금융업 무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여신 시장 71.4%, 수신 시장 63.4%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이들 은행의 과점으로 인해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

다. 일부 은행은 이자 수입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선안이 발표되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은행을 설립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혀 강원권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금융시장도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강원지역 향토은행 설립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충청권과 함께 지역은행이 없는 지역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은행 설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강원지역 향토은행은 지역의 금융주권을 확보할 기반입니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자본을 키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자생 금융기관은 신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와 지자체, 지역경제계는 향토은행 건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은행설립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자본형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7 07 ()
/ 25

‘현안 해결·국비 확보’ 힘 보태는 국회의원 보좌진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회장:길재철 보좌관·이양수 의원실)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보좌진 협의회 워크숍’이 6~7일 홍천, 고성, 양양 등 도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주축이 돼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차원에서 개최돼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은 강원자치도의 현안과 관련,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 일로 평가된다.

또 워크숍에 참석한 강원자치도청 관계자, 시·군 협력관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이번 워크숍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선언적 수준’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자치도청·시군 공무원 등이 공식적인 워크숍에 참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지역 공무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재정 상태가 빈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이 취약한 강원자치도로서는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며 에너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최고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강원자치도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비 확보전인 데다 내년부터 각종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비 9조5,000억원 확보라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지만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첨단산업 등 신

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마중물’ 예산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지역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그간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결집력을 발휘해 왔지만 이번 워크숍처럼 보좌진들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일시적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례행사로 정착시켜 지역 현안 해결의 선순환 통로가 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떤 거대한 정책보다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진 민생 문제, 청년 실업,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등 손에 잡히는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귀담아듣고 이를 의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은 주민이 원하는 입법을 발의하게 된다.

국회의원보좌진協 워크숍, 홍천 등에서 열려
자치도청·시군 공무원 참여 소통의 장
지역 사정 제대로 파악해 의원들에 전달해야

江原日報

2023 07 07 ()

/ 25

외자 유치 꿀찌 벗어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은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투자 유치 신고금액 170억9,200만 달러 대비 0.16%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실제 입금된 자금을 뜻하는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도가 유치한 실적은 3,100만 달러로 대구, 제주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다. 집계를 시작한 1963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지역 총 누계 외자 유치 금액 역시 20억2,700만 달러(도착금액 기준)로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다. 그나마 레고랜드를 통한 외자 유치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지자체 간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이 외자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으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유치로 국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30년간 재산세 감면이라는 파격 해

택을 내놓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사례는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규제 일변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비해 도 관계자가 “외자 유치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고 밝힌 점은 상당히 아쉽다. 그동안 도내 자치단체가 이런 자세로 외자 유치에 나섰다면 자성해야 할 것이다.

도의 경우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력 공급이 어려워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외자 유치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아쉬움은 있으나 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된 데다 접근망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도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는 높아졌다. 지정학적으로도 환동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국의 지방정부와 경제협력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통상, 물류, 금융상 최적지로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도의 투자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도약할 수 있다.